■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89-526.
http://doi.org/10.17948/kcs.2023..99.489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과 문화냉전의 귀결*

허은(許殷)**

목 차

1. 서론
2. 대민심리전의 전개와 선전영화 상영
3. '개발' 함의의 변화와 선전영화의 구성
4. '안보' 함의의 변화와 선전영화의 구성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한국군을 남베트남 전장에서 벌어진 문화냉전의 주체로 조명한다. 냉전시대 진영의 형성 과정은 적과 동지를 만들기 위한 선전과 심리전을 동반했고, 진영의 경계를 긋기 위한 열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남베트남 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대민심리전에 관심을 쏟아야 했고, 영화 매체를 활용한 한국군의 대민심리전은 문화냉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한국군은 한국을 모범적인 발전을 성취하는 자유진영 국가로 선전하는 영화를 상영했다.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이 미국의 탈베트남전 정책이 본격화되고 박정희 정부가 새로운 개발특수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때에 급증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한국군은 남베트남 전장에서 능동적으로 문화냉전을 벌였던 주체이자, '진영 강화'보다 '국익 극대화'를 중시하며 문화냉전의 성격을 변화시킨 주체였다.

박정희 정부의 탈베트남전 정책은 동아시아 냉전의 내재화였고, 이는 '1972년 분단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1967).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국가체제'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다. 남베트남에서 한국군이 벌인 문화냉전도 마찬가지로 '1972년 분단국가체제'의 정당화를 위해 진영논리를 탈색하며 내재화되었다.

주제어: 베트남전쟁, 문화냉전, 심리전, 선전, 영화, 박정희 정부, 주남베트남 한국군.

1. 서론

박정희 정부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연인원 32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남베트남에 파병하며 베트남전쟁에 개입했다. 남베트남 전장은 지역사회 최말단 마을의 군사적, 행정적 장악을 놓고 치열한 열전이 벌어진 전장이자,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 매체를 동원한 선전·공보 활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전장이었다.

냉전시대 진영의 형성과 유지는 적과 동지를 만들기 위한 군의 심리전을 동반했으며, 특히 진영의 경계를 긋기 위한 대규모 열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심리전이 한층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1] 여러 선행 연구가 논구했듯이 6·25전쟁 기간 한반도는 세계대전 수준의 열전이 전개된 곳이자 냉전 진영을 만드는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전장이었다.[2]

---

1) 냉전 초기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전개된 심리전의 양상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백원담·강성현 편,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 진인진, 2017.

2) 2000년대 이후 군사학, 사회과학 그리고 역사학 분야 연구자들이 6·25전쟁 기간 미군이 생산한 심리전 자료를 주목하며 주요 연구 성과를 연이어 제출했다. 최용성,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1950년 6월-12월)」, 『군사』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삐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6·25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개 양상」, 『한국사론』 50, 서울대 국사학과, 2004; 장영민, 「한국전쟁 전반기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고찰」, 『군사』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이윤규,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6·25전쟁과 심리전』, 지식더미, 2006; 김영희, 「한국전쟁 기간 삐라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52-1, 한국언론학회, 2008; 이임하, 『적을 삐라로 묻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철수와 영희, 2012.
미군의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심리전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 김영희, 「한국전쟁 기간 미국의 대한(對韓) 방송활동: VOA한국어 방송과 VUNC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2, 한국언론학회, 2009; 장영민, 「6·25전쟁기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 방송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4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냉전 시대 미국의 정부, 학계, 군이 결합하여 벌인 심리전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Ron Robin,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Culture and Politics in the Military-Intellectual Complex*,

6·25전쟁 시기 미군이 전방에서 대적(對敵)심리전을 주도했다면,[3] 한국군은 후방 '공비토벌' 지역에서 대민(對民)심리전의 경험을 쌓았다.[4]

베트남전쟁의 주 전선은 적과 아를 명확히 가른 전선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모호한 전선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주민을 심리전의 주 대상으로 만들었다. 남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대민심리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5] 베트남전쟁은 진영의 경계를 긋기 위한 열전과 심리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전쟁이라는 점에서, 또한 남한과 북한이 베트남전에까지 개입하여 '적 만들기'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6·25전쟁의 후속이자 확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6]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적대세력 배제를 위한 전투와 '국가 만들기' (nation building)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병행된 전쟁이었고, 이는 기존 심리전의 질적 변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6·25전쟁과 달랐다.

이 글은 주남베트남 한국군이 대민심리전에 큰 관심을 쏟으며 '선전영화'를[7] 주요 매체로 활용한 사실을 주목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크리스토퍼 심슨(정용욱 옮김), 『강압의 과학』, 선인, 2009.

3) 전방에서 대적 선전과 심리전은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은 인민군의 정치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장병의 사상선도와 정신교육에 집중했다[嚴基衡(육군대위), 「괴뢰군정치공작의 해부」, 『국방』 9, 국방부 정훈국, 1951.12, 81면; 朴英俊,(육군대령), 「육군 정훈 업무의 회고와 신년도의 구상」, 『국방』 10, 국방부 정훈국, 1952.1, 21면].

4) 한국군은 전시에 38도선 이북 지역을 점령하며 심리전 부대들을 발족시켰으나, 중국의 개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공비토벌지구' 주민에 대한 선무공작에 치중했다(육군본부 심리전감실, 『현대심리전』, 1957, 196-200면).

5)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의 민사심리전 전개와 변화 추이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최용호,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 방법과 결과」,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05; 문선익, 「베트남전쟁기 한국군의 민사심리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20.

6) 남베트남 전장에서 남과 북이 상호 치열하게 심리전을 전개한 사실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제3장 3절; 김태문, 「주월한국군에 가해진 심리전 목표분석—특히 전단(1966-1970)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2.

7)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화 중 '뉴스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문화영화'로 분류된다(문화영화 개념과 제작양상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9, 한국영화학회, 2014; 이하나, 『국가와 영화』, 혜안, 2013, 제4장 등). 이 글에서는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영화를 대민심리전 선전 매체로 활용하고 국립영화제작소도 '선전영화'라는 용어를 쓴 점을 고려하여 '문화영화' 대신 '선전영화'

주남베트남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은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벌인 대민심리전의 내용과 목표를 파악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상영한 선전영화는 여타 매체와 달리 참전 기간 영화 상영의 추이와 영화 구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한국군이 벌인 대민심리전의 내용과 성격의 변화를 논구하기에 유용한 소재이다.

둘째,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은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전쟁의 대민심리전에 관여한 사실과 그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고리이기 때문이다. 선전영화는 전단, 소책자, 사진 패널과 같은 선전 매체와 달리 주남베트남 한국군사령부 산하의 민사심리전 부대가 독자적으로 제작할 수 없었고, 선전영화 중 한국(군)을 소재로 삼은 영화는 박정희 정부의 선전정책을 시행하는 국립영화제작소의 지원을 받아야만 상영할 수 있었다.[8]

셋째,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은 남베트남 전장에서 벌어진 '문화냉전'의 양상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소재이기 때문이다. 문화냉전은 일반적으로 냉전시대 진영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소련이 문화·공보 영역에서 다양한 매체와 인적교류 등을 활용해 대상국 국민에게 가치와 이념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상대 진영의 통합력을 약화하거나 진영 내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시도와 양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른바 '자유진영'으로 한정하면 문화냉전은 주로 미해외공보처(USIA)와 미국무부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관철하기 위해 벌인 인적 교류 및 공보·선전 활동과 이에 대한 상대국의 대응을 의미한다.[9] 그런데 베트남전쟁에서 확인되는 문화냉전과

를 쓰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선전영화' 용어를 '문화영화'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며 쓰는 것이 아니다.

8) 국립영화제작소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함충범·정대훈, 「박정희 정권기 국립영화제작소에 대한 연구: 1960년대 한국영화계의 시대적 특수성 및 역사적 함의와 더불어」,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8,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3; 이순진, 「국가에 의한 영화 제작의 역사와 국립영화제작소: 정부 영화제작 기구와 민간 영화산업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워진 한국영화사—문화영화의 안과 밖』, 한국영상자료원, 2014.

9) 국내 문화냉전 연구는 미국이 한국에서 추진한 문화냉전 정책과 사업 전반을 밝히는 차원에서, 개별 매체를 중심으로 문화냉전 실상을 상세히 밝히는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공영민, 「1950년대 미국의 공보선전 전략과 공보실 영화제작소」,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8; 김려실, 『문화냉전: 미국의 공보선전과 주한미공보원 영화』, 현실문화, 2019; 장영민, 『한국방송의 성장과 미국의 대한선전』, 선인, 2020

관련한 두 가지 특징적인 변화는 한국군의 역할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나는 베트남전쟁에서 기존의 '군 주도의 심리전과 민간 정부 주도의 문화냉전'이란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점이다. 이 전쟁에서 미국 정부와 미군은 적대세력뿐만 아니라 중립적・우호적인 이들까지 모두를 심리전의 대상으로 상정했다. 이는 기존 군사적 측면에 한정된 심리전의 범위를 확장해 정치, 경제적 '국가 만들기'를 핵심 사안으로 포괄하려는 의도였다. 같은 맥락에서 군사적 측면에 한정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PsyWar) 용어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심리작전'(Psychological Operations/PsyOps)으로 대체되었다.[10] 다른 하나는 1950년대 미국의 벌인 문화냉전의 '수동적인 대상'이었던 한국이 남베트남 전장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변신해 갔다는 점이다. 한국군은 비록 전술책임지역에 한정되었지만, 문화냉전의 내용을 포괄하는 '심리작전'(PsyOps)을 능동적으로 벌인 주체였다.

6・25전쟁 시기 벌어진 심리전에 집중되었던 학계의 관심은 베트남전쟁으로 확장되고 있다.[11]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이 민사심리전에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인쇄매체, 영상매체에 관한 실증적인 검토조차 부재한 실태이고,[12] 민사심리전에 관한 고찰도 군사(軍史)적인 관심에서

등). 더불어 문화냉전 연구의 주요한 흐름으로 연구범위가 미국과 소련 중심 또는 서구 중심의 고찰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 특히 냉전의 경계지대로 확장된 것을 들 수 있다(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1940-1950년대』, 현실문화, 2008; 기시 도시히코・쓰치야 유카 편(김려실 옮김), 『문화냉전과 아시아: 냉전 연구를 탈중심화 하기』, 소명출판, 2012; 오타오사무・허은 편,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 소명출판, 2017 등).

10) Robert W. Chandler. 'U.S. Psychological Operations in Vietnam, 1965-72', Diss of Ph.D,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74, pp.39-40.

11) 이신재, 「주월한국군방송국(KFVN)의 설치와 운영」, 『군사』 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베트남전쟁 시기 국내에서 전개된 전쟁 선전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김우성, 「베트남 참전 시기 한국의 전쟁 선전과 보도: 1965-1973년 정부, 의회, 군사 자료와 조선일보를 통해 본 베트남 전쟁의 사회적 현실」,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12)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전 관련 영화제작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는 박선영에 의해 진행되었다(박선영, 「프레임 속의 전쟁: 국립영화제작소와 국군영화제작소의 베트남전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과 아카이빙 그리고 새로운 역사쓰기』, 선인, 2015). 이외에도 조혜랑의 연구가 베트남전 관련 문화영화 제작상황을 다루어 참조된다(조혜랑, 「'베트남전쟁 문화영화'의 역사적 배경 연구: 1960-70년대 국립영화제작소의 영상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7, 영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역할에 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의 주안점을 문화냉전으로 이동하여 한국군의 민사심리전 활동과 성격을 새롭게 논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주남베트남 한국군이 사단 단위에서 생산한 민사심리전 보고서와 국립영화제작소의 영화 제작 및 선전정책 자료를 교차 검토하여, 한국군이 벌인 선전영화 상영의 실상과 문화냉전의 성격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대민심리전의 전개와 선전영화 상영

1) 대민심리전의 부각과 한국군의 방침

남베트남 정부는 전국의 촌락을 재건하여 자신의 통치하에 두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삼았다.[13]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한국군은 민사심리전의 주된 목표를 남베트남 정부가 전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맞추고, 전술책임지역 내 남베트남 군과 행정의 책임자들 그리고 '주남베트남 미경제사절단'(USOM, Vietnam, 이하 유솜)과 '주남베트남 미군사원조사령부' (U.S.MACV)의 책임자들과 긴밀하게 협조했다.[14]

한국군은 전술책임지역에서 피해지구 복구, 구호, 농업 진흥, 보건・위생, 교육 그리고 공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민지원 사업을 벌였다.[15] 이중 공보 부분에는 영화 상영, 전단・간행물 배포와 같이 심리전으로 분류되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는 남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이 민사 활동과 심리전 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6] 주남베트남 한국군사령부(이하 한국군사령부)에 따르면 '최전선'이 명확하지 않아 이른바

예술학회, 2015). 다만 이들 연구는 영화제작 실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안점이 있어, 한국군의 영화 상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13)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駐越韓國軍戰史資料集)』 1-2, 1967, 32면.

14) 주월한국군사령부 원조기획처, 「주월한국군의 민사활동 현황」, 1965,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43면.

15) 주월한국군이 벌인 대민지원활동과 심리전의 전반적인 양상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越南戰綜合硏究)』, 1974, 제7장; 최용호, 앞의 글, 제5・6장.

16) 주월한국군사령부 원조기획처, 앞의 글, 같은 면.

'베트콩'이라고 불린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세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전쟁 대상에 포함되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민심리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민지원의 병행이 불가피했다.[17]

1965년 10월 지휘소를 설치한 한국군사령부는 심리전 업무를 대민지원 업무와 통합할 필요성을 인지한 후 주관부서를 작전처에서 군수처로 이관했다가,[18] 이후 민사심리전을 전담하는 별도의 민심참모부를 신설하고, 사단에도 민심참모부를 설치했다. 더불어 야전 사령부 예하에 민사심리전 중대가 배치되었다. 민사심리전 중대는 확성기반과 선무반으로 구성된 3개의 민사심리전 소대를 수도사단, 9사단, 해병대와 건설지원단에 배치했으며,[19] 민사심리전 소대의 선무반은 영화(조), 공보(조), 농사지도(조) 3개 조로 구성되었다.

1965년 베트남전 개입 직후부터 한국군은 '미국합동공보국'(Joint United States Public Affairs Office/JUSPAO, 이하 '저스파오')으로부터 대민심리전 지원을 받았고, 양자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저스파오가 1972년 해체될 때까지 이어졌다.[20] 한편, 1968년 1월 '구정 공세' 이후 남베트남군,

17)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에 있어서의 심리전 현황」, 1965,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47면.
18) 주월한국군사령부, 「정기 원조기획보고 제1호(1965.10.20-12.31)」, 1966.1.20,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80면. 해병대의 경우는 예외였다. 해병대 제2여단 여단 참모부 편성에 군수담당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았다고 한다.
19) 최영호, 앞의 논문, 115-116면;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면.
20) '저스파오'(JUSPAO)는 1965년 미군 파병의 본격화와 함께 미해외공보처(USIA), 미국제개발처(USAID), 미국방부 세 기관의 공보업무를 남베트남 현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군민(軍民)합동 기구로서 만들어졌다. 저스파오는 미해외공보처의 관할하에 있으며 심리전과 군민협조, 남베트남 정부의 대중매체 개발과 공보 지원, 미국 정부의 공보문화 사업 지원을 벌였다. 1960년대 말 저스파오는 미국인 직원이 7백여 명, 현지인 수천 명이라는 조직 규모를 자랑했으며, 공보와 심리전을 사실상 총괄하는 기구로서 1972년 6월까지 존속했다('7년 만에 문 닫는 저스파오', 『경향신문』 1972.6.29). 저스파오의 상세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조. Robert J. Kodosky, Psychological Operations American Style: The Joint United States Public Affairs Office, Vietnam and Beyond, Lexington Books, 2007; Nicholas J.Cull,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ch.6.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벌인 심리전의 양상에 관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조, Robert W. Chandler, War of Ideas: The U.S. Propaganda Campaign in Vietnam, Westview Press, 1981; Mervyn Edwin Roberts Ⅲ, The Psychological War for Vietnam, 1960-1968,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8.

한국군, 미군은 심리작전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군단과 사단에 '전술지역합동위원회'와 '합동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민사심리전 첩보 교환', '선전대상 조정', '민사심리전 활동 결과 분석', '민사심리전 활동 방침의 수립' 등에 관한 협조를 도모했다.[21]

한국군이 대민심리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전술책임지역에 자리를 잡은 뒤인 1966년 초로 보인다. 한국군은 1966년도 민사심리전의 주요 목표를 '자유 우방군의 강력한 군사력을 인식시켜 대공전에서 필승의 신념을 주입하는 것', '한국군의 파월 목적과 한국군의 지원 노력을 인식시켜 양 국민의 우호심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 '베트콩과 주민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남베트남 정부의 신뢰 강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하는 것' 등으로 세웠다.[22] 또한 한국군은 민사심리전의 표적을 '베트콩 통제하에 있었던 촌락의 주민', '베트콩 통제하에 있는 주민', '남베트남 정규군 및 지방군(RF)/민병대(PF)', '사이공 지역의 주민'으로 세분하고, 각 대상에 따라 목표에 차이를 두었다.[23]

채명신이 이끄는 한국군사령부는 독자적인 군 지휘권의 확보를 중시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민사심리전에서도 확인된다. 1966년 초 한국군사령부는 한국군이 유솜(USOM, Vietnam)으로부터 받은 물자를 배포하는 것은 민사심리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무공작에 쓸 국산 제품과 '전형적인 한국의 모습'을 잘 알릴 수 있는 영화나 간행물을 지원해 달라고 본국에 요청했다.[24] 이러한 요청에 부응한 기구가 1966년 4월 만들어진 '파월장병지원위원회'였다.[25] 파월장병지원위원회는 '파월 장병의 사기 앙양', '파월

21) 민사심리전처, 「민사심리전협조기구」, 1968.1, 『심리전 일반』, 주월사(주월한국군사령부), 1968, 134-135면,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HB01807; 주월한국군사령부, 앞의 책, 1974, 934면, 937면; Office Deputy Chief of Staff for Military Operations, *PSYOP FACT BOOK : International and Civil Affairs Directorate*, p.1, RG319, PsyOp in Vietnam War 1964-74, Box 4, U.S. NARA at College Park.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정보는 해당 자료를 처음 제시할 때 밝힌 뒤 편의상 생략한다.

22) 「1966년도 대민지원 및 심리전 계획」,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68-69면.

23) 「1966년도 대민지원 및 심리전 계획」,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69면.

24) 주월한국군사령부, 「정기 원조기획보고 제1호(1965.10.20-12.31)」, 1966.1.20,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84-85면.

장병 가족 지원', '원호 장병 지원' 등과 함께 민사심리전에 필요한 선무공작 용품의 지원도 맡았다.[26]

2) 대민심리전 매체와 선전영화의 비중 변화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생산된 수도사단의 민사심리전 보고서는 사단 이하에서 실시된 선전영화 상영의 실태와 추이를 보여준다. 1966년 3월 한 달 동안에 수도사단은 영화 상영을 10회 했으며, 관람 총인원은 1,600여 명이었고, 상영한 영화는 〈즐거운 쇼〉, 〈한국의 어제와 오늘〉 외 2편이었다. 같은 달 수도사단은 전단 살포 작전을 총 55회 벌여 약 97만 5천여 매를 살포했다.[27] 한국군 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 부대) 산하 제8인쇄대에서도 신문이나 전단을 제작했지만, 대규모 전단 제작은 남베트남군이나 미군 민사심리전 중대로부터 지원받았다. 전단과 영화는 특성이 다른 매체이기에, 양자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은 전투 지역에서 적의 투항이나 적지의 주민 철수를 목표로 하는 '전술심리전'의 수단이라 한다면,[28] 영화 상영은 피난민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전제하더라도 베트남전쟁 개입 초기 한국군의 '대적심리전'에서 전단 살포가 차지한 비중에 비하면 '대민심리전'에서 영화 상영의 비중은 미약했다.

1960년대 후반 한국군은 대민심리전에서 영화보다는 인쇄물과 같은 매체를 더 선호했고 이외에도 사진 전시, 게시판, 포스터 등을 활용했다. 이들 매체는 영화와 달리 한국군이 직접 제작할 수 있었다. 한국군사령부

25) 파월장병지원위원회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이신재, 「베트남전쟁기 파월장병지원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군사연구』 149, 육군군사연구소, 2020.
26) 파월장병지원위원회, 「67년도 우선순위에 의한 파월장병 지원사업 세부 실천계획」, 1967.4.6,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93.
27) 주월한국군사령부, 「정기 원조기획보고 제4호」, 1966.4.13, 『주월한국군전사자료집』 1-2, 132면.
28) 1966년 11월 15-16일 9사단 29연대는 책임 지역의 적 소탕과 중대기지 설치를 목적으로 한 작전을 벌이며, 적의 투항과 사기 저하를 유도하기 위한 전술심리전을 실시했다. 이 작전에 전단 9만 매가 살포되었다(주월한국군사령부, 『민사심리전 순보』 1, 1967.2.28, 42-43면).

가 우호적인 대민관계 형성을 위해 배포한 대표적인 인쇄물은 정간물 '따이한(대한의 소식)', 화보집 '평화와 건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가 발간한 '자유의 벗'이었다.[29] 1968년 8월 9사단은 민사심리전에서 활용하기 위해 2종의 화보를 6천여 매 제작하고, 5종의 책자 2,850여 권을 확보했다. 9사단은 '백마화보'라는 사단 선전 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인쇄물의 배포 대상은 '성장(省長)과 군수, 면 촌장, 학생, 지방군, 유지, 언론인, 청장년, 주민, 기타' 등으로 나열되었는데,[30] 이러한 배포 대상은 한국군이 인쇄물을 활용한 대민심리전에서 지역사회 행정 책임자와 여론주도층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영화는 인쇄물과 달리 남녀노소, 식자와 문맹자를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선전 매체이다. 한국군사령부는 민사심리전 소대의 선무반을 작전 지역에 투입해 영화를 상영했다.[31] 일례로 1967년 1월 수도사단 26연대가 작전 전개 중인 지역에 투입된 선무반은 피난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고, 한국군이 대민지원과 귀순자 생활 보장에 힘쓰는 군대라는 인식을 불어넣고자 했다.[32]

〈표 1〉은 1967년 1월 수도사단의 영화 상영 횟수가 적고 영화 구성도 다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민심리전에서 영화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양상은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1968년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수도사단은 민사심리전에서 영화와 연예 공연을 총 6회 실시하여 관람객 2천여 명을 동원했을 뿐이다. 수도사단은 동 기간 보고서에 영사기 고장

29) 9사단사령부, 「월간 민사심리 정기보고 제8호」, 1968.9.1, 『각 부대 민사심리전(1968년도)』, 주월사, 48면, 군사편찬연구소 HB01813. '따이한'은 정기간행물로 확인되나, '평화와 건설'이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까지 화보집 '평화와 건설'은 1967년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호만이 확인된다.

30) 보병제9사단, 「부대역사 보고(9월분)」의 민사심리전 〈표: 매개물〉, 1970.9.30, 『월남전쟁 파월한국군전쟁사료』 32, 육군본부, 2004.

31) 수도사단사령부, 「주간 민사 및 심리작전 정기 보고 제5호(1967.1.28-2.4)」, 1967.2, 『민사 및 심리작전 보고(1967년도)』, 7면, 수도사단, 군사편찬연구소 HB01865. 사단 민심처 보고서에 따르면 연대가 주관한 대민심리전 영화 상영은 연대의 민사과가 전담하지 않고 사단의 정훈참모부 영화촬영반과 협업한 것으로 보인다. 남베트남 한국군사령부와 각 사단에는 '정훈참모부'가 있었고, 정훈참모부 내에는 정훈과, 방송과, 영화촬영반이 있었다(이신재, 앞의 글, 2014, 77면).

32) 수도사단사령부, 「주간 민사 및 심리작전 보고 제3호(1967.1.14-1.21)」, 1967.1.23, 5면, 『민사 및 심리작전 보고(1967년도)』, 수도사단.

까지 언급할 정도로 상영 여건은 좋지 않았다.[33]

〈표 1〉 1967년 1월 수도사단 영화 상영

일시	내 용	참관인원	위치	부대	관람자
1.7.	'베트콩 폭동' '나는 살고싶다'	민사심리전 선무반 26연대 민사과 요원 및 경계병	시안060 017	26연대	1,200
1.18.	상동	상동	토록	상동	1,100
1.19.	상동	상동	통탄	상동	1,500
1.20.	상동	상동	빈탄	상동	2,000
1.21.	한국영화**	제2군수단 민사과 요원	한진회사	제1지원단	350

* 수도사단사령부, 「주간 민사 및 심리작전 보고 제3호(1967.1.14-1.21)」, 1967.1.23, 5면, 표 재인용, 『민사 및 심리작전 보고(1968.1)』, 수도사단, 군사편찬연구소 HB01865.
** 제1 군수지원단의 민사과 요원으로 구성된 선무반이 한진회사 소속 남베트남인에게 한국 영화 상영. 영화제목은 확인되지 않음.

그런데 1970년이 되자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 양상은 급변했다. 한국군사령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총 3,488회에 걸쳐 영화를 상영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8년 397회, 1969년 489회에 불과했다가 1970년 1,062회, 1971년 915회로 급증했고, 철군을 시작한 1972년에 124회로 급감하는 양상이 확인된다.[34]

수도사단의 영화 상영도 전체적인 추이와 대동소이하여, 1970년 1월 영화 상영 총 13회, 관람 인원 2,440명이었던 것이 4월에 가면 총 27회 영화 상영과 관람 인원 10,180명으로 급증했다.[35]

33) 수도사단사령부, 「월간 민사심리전 정기보고 제11호(1968.10.26-11.25)」, 1968.12, 『각 부대 민사심리전(1968년도)』, 주월사, 36면. 1968년 주월한국군사령부는 기배정된 예산으로 민사심리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우려할 정도였다('평정계획예산', 『심리전 일반』 주월사, 1968, 140면).

34) 주월한국군사령부편, 앞의 책, 1974, 945면; 국방부, 『주월한국군전사(1972.1-1973.3)』 10, 1985, 394면.

35) 수도사단 민사처, 「월간 민사심리전 정기보고 제1호(1970.1.1-1.31)」, 1970.2,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0년도)』, 18면, 군사편찬연구소 HB01866; 수도사단 민사처, 「월간 민사심리전 정기보고 제4호(1970.4.1-4.30)」, 1970.4,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0년도)』, 139면.

〈표 2〉 1970년 2월 수도사단 민사심리전 영화 상영

부대	활동지역	내용		출처	활동량			관람인원				
		구분	제목	출처	시간	횟수	총시간	남	여	15세 이상	15세 이하	계
수도사단	반칸	영화	돌아온 행복, 민병대의 활약상	저스파오	2	1	2	150	100	120	130	250
	짠록		〃	〃	〃	1	2	100	100	70	130	200
	빈케고아원		〃	〃	〃	1	2	20	30	5	45	50
	따쟝		밤의 노래, 시골 잔치, 후에시의 화가	〃	〃	1	2	150	170	120	200	320
	푸풍		〃	〃	〃	1	2	170	230	150	250	400
	푸캇군청		밤의 노래, 민병대의 활약상, 돌아온 행복	〃	〃	1	2	90	100	80	110	190
	재구촌		〃	〃	〃	1	2	60	100	70	90	160
	빈탄		팔도강산, 약진하는 한국	〃	〃	1	2	120	130	100	150	250
	칸안		〃	〃	〃	1	2	70	100	70	100	170
	방칸		〃	〃	〃	1	2	100	150	120	130	250
	남탕		보건위생, 후에시의 화가	〃	〃	1	2	80	120	70	130	200
계					26	13	26	1110	1,330	975	1,465	2,440

* 수도사단 민사처, 「월말 민사 심리전 정기보고 제2호(70.2.1-2.28)」, 1970.3,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0년도)』, 18면, 표 재인용.

1970년 6월에는 영화 상영 25회, 11,050명 관람,[36] 12월에 영화 상영 30회, 10,650명 관람이란 수치를 보였고,[37] 이러한 흐름은 다음 해 초반까지 이어져서 4월에 영화가 24회 상영되고 8,350명이 관람했다.[38]

36) 수도사단 민사처, 「월간 민사심리전 정기보고 제6호(1970.6.1-6.30)」, 1970.7,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0년도)』, 199면.

37) 수도사단 민사처, 「월간 민사심리전 정기보고 제12호(1970.12.1-12.31)」, 1971.1,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0년도)』, 370면.

38) 수도사단 민사처, 「민사심리전 정기 월말보고 제4호(1971.4.1-4.30)」, 1971.5,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1년도)』, 89면, 군사편찬연구소 HB01867. 11월에 가면 8회 영화 상영과 3,040명 관람으로 규모가 크게 줄었다(수도사단 민사처, 「민사심리전 정기 월말보고 제11호(1971.11.1-11.31)」, 1971.12,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1년도)』, 248면).

〈표 3〉 1970년 6월 수도사단 민사심리처 영화 상영

부대	활동지역	내용		출처	활동량			관람인원				
		구분	제목	출처	시간	횟수	총시간	남	여	15세 이상	15세 이하	계
수도사단	빈안(2)	영화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 외 3편	저스파오	2	2	4	1,000	200	600	600	1,200
	뚜이폭 군청		자유와 죽음의 갈림길 〃	〃	〃	1	2	100		100		100
	푸캇 군청		V.C.의 최후 〃	〃	〃	1	2	100	100	200		200
	안녕 군청		한국의 역사 〃	〃	〃	2	4	1,000	400	700	700	1,400
	깐안(2)		이것이 한국이다 〃	〃	〃	2	4	600	200	500	300	800
	퀴논사범		드라마	〃	〃	2	4	600	200	400	400	800
	따장		암행어사와 흑두건 〃	〃	〃	1	2	700		300	400	700
	안손(1)		오늘의 월남 〃	〃	〃	2	4	1,000	400	800	600	1,400
	보대중학		위생관념 〃	〃	〃	1	2	300	200	300	200	500
	방칸군청		노르망디 상륙작전 〃	〃	1.5	2	3	200	100	200	100	300
	빈케군청		팔도강산 〃	〃	〃	2	3	300	200	200	300	500
	푸탄		용 꿈 〃	〃	〃	1	1.5	250	250	200	300	500
	안꽝국민교		V.C.의 일기 〃	〃	〃	1	1.5	300	300	300	300	600
	동수안 군청		진실 〃	〃	〃	1	1.5	200	200	300	100	400
계						21	38.5	6,650	2,750	5,100	4,300	9,400

* 수도사단 민사처, 「월말 민사 심리전 정기보고 제7호(70.6.1-70.6.30)」, 1970.7,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0년도)』, 205면, 표 재인용.

이처럼 1970년과 1971년 두 해에 선전영화의 상영이 급증한 사실은 '민사심리전'을 중시한 채명신 사령관이 '전투'를 중시한 이세호 사령관으로 교체된 1969년부터 민사심리전의 비중이 급격히 위축되었다는 기존 설명과도 어긋난다.[39] 다음 장에서 보듯이 1970년 초반부터 한국군이 선전영화 상영을 크게 확대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적극적인 남베트남 개발 특수 확보 정책이 있었다.

〈표 1〉, 〈표 2〉, 〈표 3〉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한국군은 1960년대 후반보다 1970년대 초에 훨씬 다양한 영화를 상영했다. 베트남전쟁 전 기간에 걸쳐 한국군이 상영한 영화는 크게 남베트남을 소재로 한 영화와 한국을 소재로 한 영화, 기타 반공영화로 구분할 수 있다(〈표 4〉 참조). 남베트남을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 1, 126, 130면. 최용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평화협상을 제의한 1968년 3월부터 민사심리전의 비중이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한다(최용호, 앞의 논문, 139면).

소재로 한 선전영화는 역사·문화를 다룬 영화(〈후에시의 화가〉, 〈밤의 노래〉, 〈월남소개〉, 〈월남 고유풍습〉, 〈오늘의 월남〉), 반공영화(〈민병대의 활약상〉, 〈V.C.의 최후〉, 〈V.C.의 일기〉, 〈브이시의 만행폭로〉, 〈용이 날뛰는 밤〉[40]) 재건과 개발을 주제로 한 영화(〈월남 건설과 부흥〉) 등이 있었다. 이 영화들은 저스파오(또는 저스파오 이전의 미공보원)나 남베트남 정부가 제작했다.

한국을 소재로 한 영화는 역사·문화 영화(〈한국의 역사〉, 〈한국20년사〉), 개발·발전상을 보여주는 영화(〈이것이 한국이다〉, 〈약진하는 한국〉, 〈팔도강산〉), 한국군을 다룬 영화(〈건군20년사〉, 〈한국군의 역사〉), 반공 이념을 다룬 영화(〈국민반공정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반공 선전영화의 성격이 짙은 한국 오락 영화들(〈용꿈〉,[41] 〈암행어사와 흑두건〉[42], 〈명동졸업생〉,[43] 〈명동88번지〉[44])이 상영되었다.

한국군사령부에 따르면 전 기간에 걸쳐 오락물이 가장 많이 상영되었고, 한국 소개물, 반공물이 뒤를 이었다.[45] 〈표 4〉 영화목록은 한국군이 현지 주민에게 국가 발전의 모범사례로서 한국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공 국민으로서 자세 확립과 생활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군의 대민 선전영화 상영은 '자유진영'의 '반공국가'와 '반공 국민' 만들기를 위한 문화냉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표 2〉와 〈표 3〉의 출처 정보에 따르면 1970년 전반기에 수도사단이 상영한 영화 전부가 저스파오로부터 배급받은 것처럼 보인다. 저스파오나 남베트남

40) 이 영화는 한국어판과 영문판으로 제작되었고, "공산 침략에 맞서고 있는 월남 일반인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주한미공보원, 『필름 카탈로그』, 1968, 76면).

41) 1966년 개봉된 코미디 가족영화이다. 가난한 집안 아들의 성공과 신분 상승, 가족의 희생 등을 다룬 영화이다(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타베이스(KMDb) 정보, https://www.kmdb.or.kr).

42) 시대극 영화로 조선시대 부패관리에 대한 권선징악을 줄거리로 삼은 영화이다. 1969년에 개봉되었다(KMDb 정보, https://www.kmdb.or.kr).

43) 반공영화이다. 1971년 4월 개봉되었고, 명동에 암약하고 있던 '북괴 지하조직'을 일망타진한다는 것이 영화 줄거리이다(KMDb 정보, https://www.kmdb.or.kr).

44) 개봉시 영화제목은 '비밀정보 88번지'였으며, '명동88번지'는 시나리오 제목이다. 1966년 개봉되었고, 액션 갱스터 오락영화이다(KMDb 정보, https://www.kmdb.or.kr).

45) 내용별 분류된 상영 영화의 비중은 오락 29%, 한국소개 28%, 반공 24%, 교육문화 19%였다(주월한국군사령부편, 앞의 책, 1974, 945면).

정부가 제작한 영화의 경우 저스파오로부터 배급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한국을 다룬 영화도 출처가 전부 저스파오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9사단은 한국을 다룬 영화들의 출처를 '민심대'로 기록했으며,[46] 1971년 수도사단 민사심리전처의 보고서들도 '민심대'로 기록했다.[47] 1970년 상반기 일시적으로 저스파오가 한국 영화를 보급했거나 아니면 보고자가 오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군의 사단 이하 부대 단위에서 상영한 대부분의 한국 영화는 한국군 야전사령부 예하의 민사심리전 중대에서 사단의 민사심리전 소대로 배포되었다고 판단된다.

남베트남인 학생이 영화를 가장 많이 관람했고, 청장년과 어린이가 뒤를 이었다.[48] 〈표 2〉,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70년과 1971년에 수도사단은 상영시간 및 횟수에서부터 관람 대상자를 성별과 나이까지 세심하게 분류하여 파악했다. 9사단은 수도사단처럼 세부적으로 대상을 나누지 않았으나, 영화 관람자를 성인과 어린이로 나누어 기존보다 상세한 파악을 시도한 점은 수도사단과 같았다. 1970년부터 한국군 민사심리전 담당자들이 선전영화 관람자를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파악한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49] 이러한 파악 방식의 변화는 한국군이 영화 매체의 활용과 효과에 관해 크게 주목했음을 방증한다. 다만, 사단이나 연대 심리전 담당자들이 영화 관람자의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차후에 반영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군사령부의 민사심리전 담당자들이 민사심리전 전반에 관한 현지 반응을 주시했음은 확인되나,[50] 사단에서 영화 관람자의 반응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반영

46) 보병제9사단, 「부대역사 보고(9월분)」의 민사심리전 〈표: 영화·연예·공연회 및 전시회〉, 1970.9.30, 『파월한국군 전쟁사료』, 육군본부, 제32집 참조.
47) 수도사단 민사처, 『민사심리전 정기보고(1971년도)』 각 월 보고서 참조.
48) 시청대상자 비중은 학생 30%, 청장년 22%, 어린이 24%, 부녀자 13%였다(주월한국군사령부편, 앞의 책, 1974, 945면).
49) 연령대별 상세 구분과 관련해서 1968년 9월 15일 남베트남 정부가 실시한 '도민증 및 시민증 등록계획'을 배경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종전 신분증 소지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대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남베트남 정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한국군도 지원했다('도민증 및 시민증 등록 계획에 대한 심리전 지원', 『심리전 일반』, 주월한국군사령부, 1968).
50)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인이 본 한국군 심리전 활동」, 1967.4, 『민사심리전순보』 제3호,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표 4〉 주월한국군의 민사심리전 상영 영화 목록

필름 제목	내용 분류	발성 언어	시간(분)	비고(전거)
월남소개	월남(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0.3
월남의 역사	월남(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1.4
월남 뉴우스	월남(교육문화)	월남어	10	종합연구
통일 6개조항	월남(교육문화)	월남어	10	종합연구
월남고유풍습	월남(교육문화)	월남어	20	종합연구 71.4
월남차량운영	월남(부대교육)	영어	20	종합연구
'후에시의 화가'	월남(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0.2,3,7
티우 호눌룰루 방문기 (유사내용:티우대통령6개조항)	월남(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1.4,12
미·월간 우정	월남(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1.12
월남건설과 부흥 (유사제목:발전하는 월남)	월남(발전)			수도민심처 70.12; 72.3 USIS K, 1967, 1968 '건설 월남'(Night of the Dragon)
오늘의 월남	월남(발전)			수도민심처 70.6
월남 사관학교 소개	월남(교육문화/반공)	월남어	10	종합연구
성년 월남군	월남(반공)	월남어	40	종합연구
국민자위대활동	월남(반공)	월남어	10	종합연구
월남군의 활약상	월남(반공)			수도민심처 70.12
민병대 활약	월남(반공)	월남어	10	종합연구/ 수도민심처 70.2
귀순권유	월남(반공)	한국어	10	종합연구
유일한 전쟁	월남(반공)	영어	10	종합연구
베트콩의 생활	월남(반공)	월남어	20	종합연구
V.C.의 최후	월남(반공)			수도민심처 70.6,12
V.C.의 일기 (유사제목: V.C의 생활)	월남(반공)			수도민심처 67.1; 70.6,7; 72.4,7,9
브이시의 만행폭로 (유사제목: 베트콩 폭동, 브의시의 잔인성)	월남(반공)			수도민심처 67.1,2; 70.7,12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CA0247887; '한국군 대민지원에 대한 외국 신문기사 발취 내용', 『파월한국군 전쟁사료』 제44집, 2006, 육군본부.

후에에서의 공산학살만행	월남(반공)	월남어	20	종합연구
여기에 방법이 있다	월남(반공)	월남어	10	종합연구
돌아온 행복 (유사제목: 행복이 다시 찾아오다)	월남(반공)			수도민심처 70.2; 72.3
진실	월남(반공)			수도민심처 70.3,6,7
용이 날뛰는 밤 (영제:Night of the Dragon)	월남(반공)	한국어	40	종합연구 USIS K, 1967, 1968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	월남(반공)	영어	10	수도민심처 70.6,7; 72.2,7 USIS K, 1964
자유와 죽음의 갈림길	월남(반공)			수도민심처 70.7,12
나는 살고 싶다	월남(반공)			수도민심처 67.1,2
월남 연예인 공연	월남(교육문화/오락)			수도민심처 70.12
티우 대통령 방한기	한국(교육문화)	월남어	10	종합연구
한국소개	한국(교육문화)	영어	40	종합연구 수도민심처 70.12; 72.7
한국의 명승고적	한국(교육문화)	월남어	40	종합연구
뉴스	한국(교육문화)	한국어	10	종합연구
한국역사소개	한국(교육문화)	영어	40	종합연구/수도민심처 70.6,7
한국20년사 (유사제목: 건국20년사)	한국(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1.12, 72.3,4,9
닉슨대통령방한기	한국(교육문화)	한국어	20	종합연구
이것이 한국이다	한국(발전)	월남어	20	종합연구 수도민심처 70.6; 71.4; 72.3,7
한국의 기적	한국(발전)	월남어	40	종합연구
약진하는 한국	한국(발전)	월남어	40	종합연구/수도민심처 70.2,3
팔도강산	한국(발전)	한국어	40	종합연구 수도민심처 70.2,3,6,7; 72.3
암행어사와 흑두건	한국(교육문화/오락)			수도민심처 70.6
명동88번지	한국(교육문화/오락)	한국어	40	종합연구
살짝이 없어예(살짜기 옵서예)	한국(교육문화/오락)	한국어	40	종합연구
용꿈	한국(교육문화/오락)			수도민심처 70.6,12; 71.12
형제	한국(교육문화/오락)			수도민심처 72.2,3
해군공보활동	한국(교육문화/오락)			

20돐의 한국군 (유사제목: 스무살의 한국군, 건군20년사)	한국(반공)	한국어/월남어	40	종합연구/수도민심처 70.3
한국군의 역사	한국(반공)			수도민심처 70.12
성년 한국군	한국(반공)	월남어	40	종합연구
한국군 활약상	한국(반공)			수도민심처 72.2
국방뉴우스	한국(반공)	한국어	10	종합연구
명동졸업생	한국(반공)			수도민심처 72.7
국민반공정신 (유사제목: 주민반공정신)	한국(반공)			수도민심처 71.4; 72.3
동물세계	교육문화	영어	10	종합연구
계몽선전	교육문화	한국어	10	종합연구
보건위생(유사제목: 보건생활, 위생관념)	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0.2,6,12; 71.4,12; 72.3
농촌계몽	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0.7,12
자유중국 농촌생활	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1.4; 72.2
우리 마을의 신생활	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2.2
젊은 미국인	미국(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1.4
미 여군 생활소개	미국(교육문화)			수도민심처 71.4, 72.9
존 글렌 스토리	미국(교육문화)	한국어/영어	30	수도민심처 71.12 USIS K, 1968
노르망디 상륙작전	교육문화	불어	40	종합연구 수도민심처 70.6,7; 72.4
파째(파테 뉴스?)	교육문화	불어	10	종합연구
춤과 노래	교육문화(오락)			수도민심처 70.3; 71.12

주) 위 표는 주월한국군사령부가 1974년에 작성한 〈표: 영화필름현황〉(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1974, 946-947면)과 베트남전쟁 시기 작성된 각 사단 민심처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약어
- '종합연구': 『월남전종합연구』
- 'USIS K, 각 년도': 주한미공보원, 『미국공보원 영화목록』 1964; USIS-KOREA, USIS FILM CATALOG, 1967; 주한미공보원, 『필름 카탈로그』, 1968.
- '수도민심처, 각 년도': 수도사단 민사심리전처(민심처) 해당 년도 월간보고. 상세 서지정보는 참고문헌 참조.

** '비고(전거)': 『월남전종합연구』, 수도사단 민사심리전처 보고서, 주한미공보원 영화목록에서 제목이 확인됨을 의미.

*** '내용 분류' : 『월남전종합연구』의 분류를 참조하여 필자가 조정한 것이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영화들이 많아 부정확할 수 있음.

**** 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영화들도 있음. 일회성으로 언급되거나, 제목이 다른 자료에서 검색되지 않는 영화들이며, 베트남어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영화로는 '행열', '추호이', '물고기' 등이 있고, 국내 제작으로 보이는 영화로 '향토부강', '투사', '어머님 마음', '섬사람들' 등이 있음.

3. '개발' 함의의 변화와 선전영화의 구성

1) 국가 위상 제고와 근대화 전범 제시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과 베트남전 전투병 파병을 단행한 이후,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확대와 국제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외 선전을 강화해 갔다. 1966년 1월 국립영화제작소는 박정희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사전 배포할 8편의 텔레비전용 선전영화 제작을 기획했는데, 여기에는 〈수출품〉이란 제목의 영화가 포함되었다.[51] 이후 국립영화제작소가 1968년에 〈한국의 수출품〉, 1969년에 〈Korea and Exports〉 등을 제작하여 해외에 배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52]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해외 선전이 정부의 주요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정상 회담이나 국제회의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10월 필리핀에서 개최가 예정된 '월남지원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베트남과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 〈조국은 새롭다〉, 〈월남전선〉, 〈가야금(개정판)〉, 〈제주도〉, 〈석굴암〉, 〈백마부대〉 6편의 영화를 배포했다. 이들 영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발전상과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활약을 선전하고 한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53]

박정희 정부는 특히 1967년 알제리에서 개최된 '유엔통상개발회의 산하

51) 제작지시서에서 확인되는 8편의 선전영화는 다음과 같다. ① 이것이 한국이다, ② 수출품, ③ 한국의 무용, ④ 태권도, ⑤ 맹호와 청룡, ⑥ 한국의 정치, ⑦ 한국군, ⑧ 한국의 불교(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동남아에 한국소개 티・비영화', 1966.1.8,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

52) 발신: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신: 국립영화제작소장, '제명: 영화필름 복사 의뢰', 1968.4.3;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한국의 수출품', 1968.4.6,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076.

53) 발신: 공보부, 수신: 중앙공보관장・국립영화제작소, '제목: 월남 지원국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영화배포 지시', 1966.10.10,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46. 공보부는 1966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조국은 새롭다"라는 제목으로 책과 선전영화를 제작했다(공보부, 『조국은 새롭다』, 1966; 국립영화제작소, '제목: 계몽영화 조국은 새롭다 배포지시', 1966.8.26,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40).

저개발국 77개국 그룹 각료회의'를 대외 선전의 호기로 주목했다.[54] 이 회의는 87개국에서 86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박정희 정부는 회의가 북한 대사관이 상주하고 있는 알제리에서 개최되지만, 북한이 비회원국이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호기라고 판단하고 선전 전략을 꼼꼼하게 세웠다. 정부는 이 회의를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임을 비동맹 국가들에 선전하고, 저개발국들과 경제협력을 긴밀히 하며 수출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정부가 준비한 선전영화는 〈이것이 한국이다〉(영문판), 〈선화 및 선명회의 노래와 무용〉, 〈팔도강산〉(영문판)이었다. 회의의 성격상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활약상을 선전하는 영화는 제외되었다.

〈이것이 한국이다〉는 〈팔도강산〉과 함께 1960년대 후반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선전하며 대외적으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수립하려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대표적인 선전영화였다.[55] 국립영화제작소는 〈이것이 한국이다〉의 제작 목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각 부문에 걸쳐 '근대화'되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해외'에 상세히 소개하는 데 두었다.[56]

국립영화제작소는 〈이것이 한국이다〉의 내용을 시기적 변화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며 바꾸었다. 1964년 불어판 〈이것이 한국이다〉의 경우 전체 영화 구성이 '아름다운 강산-현대적 건물로 채워진 서울 전경-산업화 현장-교육 진흥-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종교・대중문화・스포츠 활성화-관광명소 홍보'로 이루어졌다.[57]

---

54) 이하 회의 관련 서술은 다음 자료를 참조한 것임. 문화선전국 해외과, 문서명: '저개발 77개국 구릅 각료회의 피・알 계획서(안)', 1967.9.28, 1-4면,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64. * '구릅'은 원문 표기에 따름.

55) 〈이것이 한국이다〉는 1962년경부터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팔도강산〉의 제작과 선전주제의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김한상, 『조국근대화를 유람하기—박정희 정권 홍보드라이브, 〈팔도강산〉 10년』, 한국영상자료원, 2008.

56)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이것이 한국이다', 1966.9.22,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64. 1966년에 제작된 〈이것이 한국이다〉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발전소, 조선소의 모습을 담았다.

57) '불문판, 가제 이것이 한국이다 구성안', 1964.8.8,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64.

1967년 제작된 〈이것이 한국이다〉의 경우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강조한 점은 1964년과 같았으나, 여기에 1967년 시행된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한국의 '정치적 안정'을 입증하는 사례이자 경제부흥과 문화창달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계기로 부각하고, 주남베트남 한국군의 용맹함과 국군의 성장을 강조한 점이 달랐다.[58] 국립영화제작소는 1967년도 〈이것이 한국이다〉를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일어, 그리고 베트남어로 더빙하여 배포했다.[59] 여기서 '정치적 안정'의 입증이란 언급은 박정희 정부의 대외 선전용 주장일 뿐이다. 같은 해 6월 박정희 정부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장기 집권을 위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벌였고, 이는 학생과 시민들의 강한 반발과 비판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편, 1967년 국내 상영용 〈이것이 한국이다〉에는 '전통 문화유산'과 같이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내용이 크게 담겼으나, 같은 시기 일본 상영용 〈이것이 한국이다〉는 '기생'을 한국의 가장 유서 깊은 전통문화로 소개하고 서울을 화려한 '쇼'가 이어지는 곳으로 알렸다. 이른바 '기생관광'을 대일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다. 또한 남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의 '활약'을 부각한 국내 상영용과 달리 일본 상영용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단지 반공 최전선 보루인 분단국가를 지키는 국군의 모습만을 강조했다.[60] 이는 베트남전쟁 파병의 강조가 일본인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대신 한국이 일본의 방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국립영화제작소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58)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사항, '제명: 이것이 한국이다', 1967.9.8, 첨부 「이것이 한국이다, 국문판 해설원고」,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64.

59)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사항, '제명: 이것이 한국이다', 1967.8.1,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64.

60) 「"これが韓國だ, 解說台本」,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64. 1966년 일본판 대본에는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있으나, '기생과 쇼'는 포함되지 않았다(「TV용선전영화 "韓國を見る"」,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98).

2) 대민활동 지속과 개발특수 여건 조성

1960년대 말로 갈수록 주남베트남 한국군은 주민에게 한국의 고유문화보다 한국의 국가 발전상을 더 알리고 싶어 했다. 1968년 10월에 배포된 책자 '따이한' 제9호는 한국의 향토방위와 자주방위 태세 확립을 다룬 기사, 한국의 수출 신장과 관련 산업의 현황을 알리는 기사, 한국과 남베트남의 교역 확대를 다룬 기사 등으로 채워졌다.[61] 같은 해 배포된 '따이한' 제12호도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정치, 안보, 외교,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한국 정부와 남베트남 정부 간의 교류 소식을 주로 다루었다.[62] '따이한'의 전체 호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1960년대 말로 갈수록 한국군이 대민심리전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국군이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가 앞서 살펴본 〈이것이 한국이다〉였다. 한국군사령부는 베트남전쟁 기간 상영한 영화들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겼는데, 〈이것이 한국이다〉가 전체 영화에서 2위를 차지했고, 한국 관련 영화로 한정하면 1위였다.[63] 특히 1970년과 1971년 두 해에는 〈이것이 한국이다〉가 여타 영화보다 상영 영화목록에서 자주 확인된다. 〈이것이 한국이다〉는 1967년에 제작된 뒤 1972년에 가서야 새로운 제작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64] 1970년과 1971년에 상영된 〈이것이 한국이다〉는 1967년에 제작된 영화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은 1967년 영화가 1970년에 상영

61) '한국 소개 책자 배부'(1968.8.16), 『심리전 일반』, 주월사, 1968, 181-184면.
62) '따이한' 제12호는 ① 박대통령 1969년 예산 승인 요청에 관한 담화에서 국가 목표 명시, ② 박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에 관한 협력 일치, ③ 아스팍(ASPAC) 국가들의 한국에 사회문화센터 설치 협정, ④ 국제무역 박람회 서울에서 개막, ⑤ 522회 한글날 기념, ⑥ 월남 보건사회부 장관 한국방문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한국 소개 책자 배부'(1968.11.26), 『심리전 일반』, 주월사, 1968, 258-259면).
63) 주월한국군사령부편, 앞의 책, 1974, 946면. 한국군사령부에 따르면 1위는 〈여기에 방법이 있다〉라는 제목의 영화이며 반공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확인할 수 없으며, 저스파오가 제공한 영화로 보인다.
64) 국기기록원 검색 결과 참조(https://www.archives.go.kr).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다른 맥락에 놓여 있었다. 1969년 이래 미국과 한국은 진영의 동맹 강화를 위한 개발 지원보다 각자 국익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면서 개발 의제를 공유하는 상황을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1969년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정책을 천명한 닉슨 정부는 최대 54만 명에 달했던 미군을 1972년까지 완전히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확정한 뒤 1969년에만 6만여 명에 달하는 전투 병력을 철수시켰다. 미국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이 생각한 베트남전쟁의 이상적인 정리방식은 군사적 개입을 끝내면서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65]

남베트남 정부에 '베트남전의 베트남화'는 이전까지 미국에 크게 의존했던 사안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을 의미했다. 특히 미 원조 당국과 미군이 사실상 떠맡았던 남베트남의 지역사회 방위와 개발은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1969년 12월부터 남베트남 정부는 평정 및 개발사업을 직접 관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해 '중앙 평정 및 개발위원회'를 설립했다.[66] 남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지역사회 방위와 개발 정책을 추진하며 대민 공보와 선전의 강화도 중시했다. 남베트남 정부는 1969년도 '평정 및 개발계획'에서 "평정 및 개발계획을 이해시키고 참여토록 홍보 및 선전"을 강화해야 함을 명기했고, 1970년도 '평정 및 개발계획'에도 촌과 면에 공보원을 배치하여 대민 접촉을 확대하고 '정치적 동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담았다.[67]

한국 정부와 한국군은 남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평정 및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 종전이 논의되는 상황을 접하며 향후 대두할 개발특수에 관심이 크게 끌렸을 것이다. 1969년 10월 20일 한국군사령부는 파병 직전인 1965년 9월 5일에 남베트남군과 체결한 군사 실무약정서를 개정하기 위한 '한·월 군사 실무약정서 개정 조인식'을 가졌다. 개정 약정서에 새롭게 반영된

65) From: Chairman, EA/IG-Marshall Green, To: Chairman, NSC Review Group, 1969.11.22., Subject: NSSM-38: U.S. Policy in East Asia in the Seventies, Enclosure 'Overview paper, November 17, 1969', Section Two, Ⅲ H. Implications of the Outcome in Indochina, pp.1-2, p.6,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표제: POL 1-4-NSSM 38-Post-Vietnam Asian Policy.
66) 주월한국군사령부편, 앞의 책, 1974, 853면.
67) 같은 책, 855-856면.

내용은 한국군 임무의 범위를 기존 '월남 국가평정계획의 지원에 필요한 작전 임무'에서 '국가평정계획 및 재건계획의 지원에 필요한 작전 임무'(밑줄 강조는 필자)로 확대하는 것이었다.[68]

한국군은 미군의 철수로 인해 미군으로부터 받았던 민사심리전 지원금이 축소되어 구호와 건설사업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69] 하지만 한국군은 남베트남의 재건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대민지원사업들을 이어갔다. 1969년 6월부터 1970년 6월까지 거의 매달 비둘기부대와 각 사단에 의해 도로, 학교, 지역 공공시설 등의 준공이 이어졌다. 국립영화제작소는 이를 영화 소재로 주목했다.[70]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성과 덕분에 1970년 6월 이세호 사령관이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월남 심리전 1등 훈장'을 수여 받았다. 닉슨독트린 선언 이후 국면은 종전 후 대두될 새로운 개발특수를 주목하는 상황을 조성했고, 이는 민사심리전보다 전투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세호 사령관이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심리전 훈장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다.

한편, 1970년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와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했다. 1970년 4월 6일 외무부 장관 최규하가 남베트남을 방문하여 '한·월 경제 및 기술협조 가조약'을 체결했고, 4월 23일에는 남덕우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남베트남을 방문하여 '제4차 한·월 경제 각료회담'을 개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장차 베트남전쟁이 종전되면 '한·월 경제 관계'를 '비정상적인 전시체제'에서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여 통상과 자본, 기술협력을 토대로 한 정상적 경제 관계를 맺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71] 박정희 정부와 한국군이 1973년 전반기까지 남베트남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미뤄볼 때,[72] 박정희 정부와

68) 'News Release(주월한국군 사령부 보도)' 1969.10.28, 「추가 촬영지시서 묶음」, 1970,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139.
69) '70년대를 향한 월남 속의 한국', 『경향신문』 1969.12.27.
70) 1969년과 1970년에 한국군이 남베트남에서 추진한 대민지원 사업들과 이에 대한 국립영화제작소의 자료 수집에 관한 상세 내용은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1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71) '전시체제 벗어나 복구협력 모색', 『경향신문』 1970.4.22.

한국군은 적어도 1973년 완전 철군을 할 때까지 새로운 개발특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1969년 미국의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정책 추진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 및 한국군의 적극적인 개발특수 추구는 1970년으로 접어들며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을 급증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전영화 상영의 맥락 변화는 한국군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벌인 문화냉전이 진영 강화보다 국익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4. '안보' 함의의 변화와 선전영화의 구성

1) '이중의 임무'와 진영 안보 수행의 부각

국립영화제작소와 국군영화제작소는 한국군을 다룬 영화를 다수 제작하여 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용으로, 국내 대민 선전용으로, 그리고 해외 홍보용으로 배포했다. 예컨대 〈월남전선〉, 〈국방뉴스〉와 같은 뉴스영화가 베트남전 전황과 장병들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국내에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73] 여기에 〈맹호와 청룡〉, 〈백마부대〉와 같은 각 사단의 활약을 알리는 영화가 제작되어 현지 부대 장병의 사기를 북돋울 목적으로 배포되었고,[74] 한국군의 업적을 선전하는 〈월남전의 한국군〉도 제작되어 한국군사령부에 전달되었다.[75]

1965년 박정희 정부는 전투병 파병 직후 선전 목표를 "(국민이) 역사상 처음인 해외 파병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이를 계기로 한 국가와 발전에 대한 긍지와 포부를" 갖도록 하는 데 맞추었다.[76] 파병 2년 차가 된 1967년 10월

72) 베트남전에 개입했던 한국군의 정세 판단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이세호, 「파월국군 귀국 보고」, 『군사평론』 제158호, 1974.3.

73) 베트남전쟁 시기 국립영화제작소와 국군영화제작소가 주도한 한국군 관련 영화와 보도뉴스의 제작에 관해서는 박선영의 연구를 참조. 박선영, 앞의 글, 2015; 「두 개의 전쟁과 집합적 기억의 형성—베트남전쟁 시기 군영화산업의 전개와 활용—」, 『현대문학의 연구』 71,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74)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백마부대', 1968.8.29,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96.

75)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월남전의 한국군', 1968.7.22,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97.

정부는 국민에게 베트남전쟁에 관한 낙관적인 인식을 불어넣고자 힘을 쏟았다. 이 시점은 한국 사회가 추가 파병과 여러 참전 경험을 접하며 전쟁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때였다. 국립영화제작소는 한국군이 거둔 "큰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 편으로 구성된 영화 시리즈의 제작을 추진했는데, 이 중 한 편은 청년에게 '전쟁에 관한 동경심'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되었고, 다른 한 편은 장병 가족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77] 이러한 영화 시리즈 제작 추진은 베트남전 참전 반대나 반전의식이 확산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청년을 전쟁에 수월하게 동원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한국군이 '강성 대군'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선전하기 위한 영화도 참전과 함께 연이어 만들어졌다. 1966년 말에서 1967년 초에 걸쳐 공군과 해군을 각각 다룬 영화가 〈한국군〉이란 제목으로 제작되어 남베트남 한국군사령부와 공보관에 배포되었다.[78] 1967년 국군영화제작소가 강성 대군으로 성장한 한국군의 모습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국군의 날 행사를 내용으로 한 〈정예 한국군〉을 만들었고,[79] 뒤이어 이 영화의 영상을 활용한 〈한국육군〉, 〈한국해병대〉가 추가로 제작했다.[80]

그런데 박정희 정부와 군은 남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이미지가 '강력한

76) '10월 중 P.R 중점', 1965.9,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889.

77) 제1편은 휴가 장병들의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4박 5일의 휴가〉, 제2편은 한국군의 중대기지 전술과 기지생활 등을 보여주기 위한 〈중대기지 전술〉, 제3편은 한국의 대민사업과 자매결연으로 맺어진 지역 주민과의 우호 관계 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 초대된 중대장〉, 제4편은 한국군이 남베트남군 지휘관들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좡나이(쾅나이?) 성장의 호위병〉이었다(기안, '파월장병 지원 영화제작 협조', 1967.10.14;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주월한국군 지원 씨리즈 제1집', 1967.11.7,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052).

78)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사항 '제명: 한국군', 1966.12.16.;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사항 '제명: 한국군', 1967.2.23,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46.

79) 〈정예 한국군〉, KMDb 정보 정보 참조, https://www.kmdb.or.kr.

80) '제명: 한국군 오티 사용', 1967.8.29.,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93; 영화제작완료보고, '제명: 한국의 해병(우리는 해병이다)', 1967.11.13,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93; 영화제작계획서, '제명: 한국육군', 1968.4.24,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068.

전투력을 보유한 군대'로만 고정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민초'를 장악하기 위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남베트남 전장에 투입된 한국군은 적을 소탕하고 적과 분리된 주민을 국가건설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군대가 되어야 했다. 이에 한국군은 '전투'와 함께 '(국가)건설'을 하는 '자유진영의 군대'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분명히 확립시키고자 했다. 이는 한국군사령부가 배포한 화보집 '평화와 건설' 머리말에 "재건 의욕에 불타는 월남 국민과 함께 공동의 적을 분쇄하기 위해 대공전선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평화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자유우방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잡지를 제작했다고 밝힌 데서 잘 드러난다.[81]

'전투와 건설'이란 이중의 임무에 복무하는 한국군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된 영화로 〈메콩강의 비둘기〉와 〈전투와 봉사〉를 들 수 있다.[82] 〈메콩강의 비둘기〉는 1966년에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화로 건설지원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83] 〈전투와 봉사〉는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전투와 건설'이라는 '이중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84] 하지만 〈전투와 봉사〉는 제작되지 못했다. 국립영화제작소가 〈전투와 봉사〉의 영어, 불어, 일본어로 된 대본까지 준비하며 제작 직전까지 작업을 진행했으나, 같은 때 주한미공보원이 제작한 선전영화 〈총과 삽〉과 줄거리가 겹치면서 제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85]

〈전투와 봉사〉와 거의 동시에 기획된 영화 〈재구의 유산〉도 주목된다. 〈재구의 유산〉은 한국군이 전투뿐만 아니라 재정착촌 건설에도 힘쓰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주남베트남 '재구대대'에 배포

81) 주월한국군사령부, '머리말', 『평화와 건설』, 1967(?)(* 연도 미상이나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잡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1967년으로 추정됨). 이 화보집은 '한국과 남베트남 유대강화', '남베트남 건설 지원',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소재로 다루었다.

82) 국립영화제작소, '파월국군PR영화 제작계획', 1966.7.20,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44.

83) 비둘기부대(건설지원단)의 대민봉사 활동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메콩강의 비둘기, 1966.10.20,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42); 영상은 국가기록원 사이트 참조, http://theme.archives.go.kr.

84) 「전투와 봉사, 구성대본」 중 '취지',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44.

85)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변경/추가)사항, '제목: 전투와 대민봉사', 1967.9.27,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44.

되었으나,[86] 한국어로만 제작되어 실제 대민심리전에 활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 정세 판단의 변화와 문화냉전의 내재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남베트남에서 상영된 한국군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선전영화로 〈스무살의 한국군〉을 들 수 있다. 〈스무살의 한국군〉은 1968년 10월 20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군이 전투력을 완비한 군대임을 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영어, 불어, 베트남어로 더빙되었다.[87] 이 영화는 2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사열을 받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시작으로 육·해·공 삼군과 해병대의 군사훈련 및 현대식 무기를 보여주는 영상이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 더불어 남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의 활약상과 향토예비군 훈련을 보여주는 영상이 포함되었다. 영상 속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88]

> 5만 명의 청년 국군이 반공,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사월 삼년(삼년 사개월) 동안에 대외에 떨친 그 용맹과 무훈은 청사에 길이 빛나는 장도일 뿐만 아니라 인류 평화에 대한 세계 역사상의 위대한 공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국군은 이미 아시아의 반공군이요, 세계평화의 십자군으로서 그 위력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89]

〈스무살의 한국군〉은 박정희의 발언을 빌리면 한국군을 '아시아의 반공군', '세계평화의 십자군'으로서 선전했기에 남베트남 전장에서 선전영화로 자주 활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박정희의 연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탈베트남전

---

86)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재구의 유산', 1966.10.20; 영화제작완료보고 '제명: 재구의 유산(월남땅의 재구촌)', 1967.1.7;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변경/추가)사항, '제명: 재구의 유산', 1966.12.29,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1945.

87)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스무살의 한국군', 1968.9.12,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063.

88) 영상은 한국정책방송원(K-TV) 'e영상역사관' 사이트, https://www.ehistory.go.kr.

89) 영상 상세 정보는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역사영상융합연구팀 한국근현대영상아카이브, http://kfilm.khistory.org.

정책이 전면화되기 이전까지 베트남전 파병의 역사적 의의를 '진영 안보' 차원에서 찾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1968년 제작된 〈스무살의 한국군〉에서 자주국방 강조는 향토예비군 창설을 강조한 영상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1·21사태로 상징되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1969년에도 한국 정부와 군은 자주국방을 역설했고,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1969년 10월 만들어진 〈자주국방의 전위 팬텀 공군〉이다.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작된 이 영화는 남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이 대민심리전용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군이 자주국방을 역설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 영화는 원래 "육·해·공군·해병대의 위상과 현대화된 장비를 국내외에 소개하고 예비군을 포함한 자주국방체제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90] 이 영화는 최종적으로 공군만을 다루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선전 범위의 축소와 별개로 자주국방(체제) 확립이란 주제는 변경 없이 강조되었다.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강조도 1969년 7월 닉슨 대통령의 괌독트린 이후 베트남전쟁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지금 우리는 (부제: 오늘의 정세)〉의 제작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91] 국립영화제작소는 8월 11일부터 19일이라는 열흘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지금 우리는〉의 기획부터 제작까지 완료했다. 이처럼 영화를 급조하게 만든 동인은 박정희 정부의 동아시아 정세 급변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처로 대국민 선전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국립영화제작소가 밝힌 제작 의도는 다음과 같다.

> 격동하는 오늘의 국제정세(월남전의 양상, 중공 핵실험 등)와 국내정세(북괴의 무력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와 도발상)를 설명하고 이에 대처한 국민들의 올바른

90)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 지시서, '제명: 국군의 날', 1969.9.29; 국립영화제작소, 기록영화 『자주국방의 전위 팬텀공군』(해설대본);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 지시사항 '제명: 국군의 날', 1969.10.16,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02099.

91)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 지시서, '제명: 오늘의 정세', 1969.8.11; 영화 제작완료 보고, '제명: 오늘의 정세(지금 우리는)', 1969.8.11,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096.

자세(조국근대화 작업)를 일깨움[92]

국립영화제작소가 〈지금 우리는〉을 빨리 제작하도록 독려하는 일은 중앙정보부가 맡았다. 이는 중앙정보부 해외정보국 북한과장이자 중앙정보부 부설 기관인 국제문제연구소의 소장을 겸하고 있던 강인덕이 국립영화제작소에 '우리의 국가 목표와 요망되는 국민의 자세'라는 문건을 영화제작 지침으로 제공한 사실에서 확인된다.[93] 영화의 제작 지침으로 제공된 문건에서 강인덕은 국가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토통일과 영구적 독립의 보전, 국민의 자유 확보와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제적 위신 확립과 항구적 국제평화 기여"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유엔을 통한 국토통일의 실현, 국방력 강화와 자유우방 제국과의 안보체제 확립, 강력한 반공체제 확립, 여러 민주 시책의 시행, 급속한 경제 및 국토건설, 국제기구와의 적극 협조, 자주 외교 노력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94] 그는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영매하고 확고한 지도'를 받으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성취를 거듭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상투적인 표현으로 덧칠된 국가 목표 관련 내용보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취'를 막는 '국내외 장애 요소'를 분석한 부분이 주목된다. 강인덕은 국내 장애 요소로 "전근대적인 정치의식의 잔존으로 인한 파벌조성 경향, 대안 없는 비정책적 극한 투쟁을 전개하는 정계의 비민주성 상존, 준법정신의 결여와 부정부패의 불근절,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소비성향의 과도한 상승, 본분을 망각하는 일부층의 과도한 정치 참여 경향" 등을 열거했다.[95] 이 중 '비정책적 극한 투쟁',

92) 국립영화제작소장 영화제작지시서, 제명: 오늘의 정세, 1969.8.11.

93) 강인덕, 「우리의 국가목표와 요망되는 국민의 자세」, 1969.7,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096. 이 문건은 표지의 제목 밑에 강인덕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 따라서 강인덕이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같은 해 9월에 잡지 『세대』에 강인덕이 「70년대 국가안보」라는 글을 실었던 것으로 보아 문건 작성자일 가능성이 크다. 문건 '우리의 국가목표와 요망되는 국민의 자세'는 7월에 작성되었기에, 8월 영화제작 시작 전에 국립영화제작소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강인덕에 따르면 닉슨 독트린으로 천명되자 북한정보 분석관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을 우려하며 주목했다(강인덕,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1, 경인문화사, 2022, 205-206면).

94) 강인덕, 앞의 글, 1면. '우리의 국가목표와 요망되는 국민의 자세'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10면 정도 분량의 문건이다. 이하 각주에서 제시된 면수는 필자가 편의상 매긴 것이다.

'일부층의 과도한 정치 참여 경향' 등의 언급은 이 시기 박정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던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을 두고 하는 언급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강인덕은 국가 발전을 막는 국제적인 장애 요소로 '전쟁 준비와 대남도발을 하는 북한', '핵무기를 확대하는 중국'과 '월남전의 종결 경향', '월남특수의 감축' 및 '외원의 감소 경향'을 지목했다. 이러한 장애 요소의 나열은 박정희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이 닉슨의 괌독트린 공표와 파리 강화회담 추진으로 표출되는 베트남전 종결 흐름이 '반공 지역 집단안보체제 형성' 및 '한국의 동남아 진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간 한국이 참전으로 얻은 전쟁특수와 미군의 군사원조가 사라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음을 보여준다.[96] 앞에서 살펴보았던 남베트남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종전 후 개발특수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던 이면에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다. 강인덕은 문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영국군의 철수 가능성만을 언급했으나, 강인덕이 제공한 중앙정보부의 제작 지침에 따라 국립영화제작소가 작성한 영화 원고에는 '닉슨독트린과 미군의 철수'가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인이라고 분명히 지적되었다.[97]

이처럼 1969년 8월 〈지금 우리는〉의 제작은 자주국방의 역설을 둘러싼 맥락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1969년 미국의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정책 추진이 낳은 새로운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문화냉전의 주요 주제인 '개발'을 미국 및 남베트남과 공유한 것처럼, 한국은 진영의 안보보다 자국 안보를 중시하면서 문화냉전의 주제로 '안보'를 두 국가와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완전히 철군하는 시점에 맞추어 진영 안보 논리도 완전히 지웠다. 1973년 1월 문화공보부는 한국군의 철군에 관한 홍보의 목표를 "국군 파월의 역사적 의의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헌을

95) 강인덕, 앞의 글, 8-9면.
96) 같은 글, 7-8면.
97) '지금 우리는(오늘의 정세) 구성안', 5면; '오늘의 정세(최종 채택원고)', 10면,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 관리번호 BA0792096. 영화 원고는 두 차례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나 강인덕으로부터 검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홍보함으로써 민족 긍지를 선양"하는 것으로 정했다. 문화공보부는 홍보 방침에서 '세계평화'는 강조했으나 '아시아 반공'과 같이 '진영의 안보'를 연상시키는 용어는 반복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문화공보부는 홍보 방향에서 '미국의 지원에 대한 보답'을 참전의 이유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거론하면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강대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 달리 말하면 미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문화공보부는 베트남전쟁의 종전이 '강대국'에 의한 '불리한 종결'이란 점을 알리고 이를 '10월 유신' 선포의 당위성과 국력 배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선전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공보부는 국민에게 '파월 장병의 개선'을 '실전을 치른 전사들'의 국토방위 참여와 이에 따른 안보태세의 강화로 선전하고자 했다.[98] 문화공보부는 이러한 선전방침을 정하고 〈위대한 국군(부제: 국군의 개선)〉의 제작을 지시했다.

1973년 5월 〈위대한 국군〉이 제작되었다. 이 선전영화는 남베트남에서 한국군이 벌인 대민활동과 군사작전을 소개하고, 군을 한국의 힘을 세계로 알린 '위대한 국군'으로 평가했다.[99] 제작진은 〈메콩강의 비둘기〉, 〈주월한국군〉, 〈재구의 유산〉, 〈중대기지 전술〉 그리고 〈월남전선〉 등에 담긴 영상을 재활용했다.[100] 이처럼 〈위대한 국군〉은 한국군이 남베트남 대민심리전에서 쓴 선전영화들을 재활용했으나, 자유진영의 강화를 선전의 핵심 주제로 삼지 않았다. 〈위대한 국군〉은 파병이 '국위 선양', '국가이익 확보',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와 새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을 세계에 과시'한 계기였다는 점과 '한국군의 개선'으로 '자주국방'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화의 마침표를 찍었다.[101] 1973년 〈위대한 국군〉은 박정희 정부가 진영 동맹을

98) 문화공보부, 1973.1, 「파월장병 개선에 따른 종합홍보계획」, 1-2면,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364.

99) 〈위대한 국군(국군의 개선)〉(1973), e영상역사관 사이트, https://www.ehistory.go.kr.

100) 영화제작완료보고서, 제명: 위대한 국군, 1973.5.14,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426.

101) 「(구성안) (가제) 파월국군의 개선」, 12-13면; 「(녹음대본) 개선 파월국군」 30-32면,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관리번호 BA0792426. 〈위대한 국군〉의 영화 구성과 선전은 같은 해 국군영화제작

불신하며 동아시아 냉전을 내재화한 결과물인 '1972년 분단국가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선전물이었다.

요컨대, 박정희 정부의 탈베트남전 정책이 동아시아 냉전의 내재화와 '1972년 분단국가체제'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듯이,[102] 남베트남 전장에서 벌인 문화냉전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진영논리만 탈색된 채 내재화하여, '1972년 분단국가체제'에 정당성을 불어넣었다.

5. 결론

이상 남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이 벌인 선전영화 상영의 실상을 검토하여 한국군이 박정희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문화냉전을 수행한 주체였음을 밝혔다. 더불어 1969년 미국의 '베트남전의 베트남화'가 낳은 새로운 조건은 문화냉전의 주요 주제인 개발과 안보의 함의를 변화시켰고, 한국군이 벌인 문화냉전의 최종 귀결은 진영논리가 탈색된 문화냉전의 내재화였음을 밝혔다.

한국군이 남베트남 전장에서 벌인 대민 선전영화 상영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의 대민 선전영화 상영은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문화냉전의 주체였음을 보여준다. 적대세력 제거와 국가건설이 병행된 남베트남 전장에서 한국군은 적의 소탕 및 무력화와 직결된 전술심리전과 함께 국가건설과 관련된 개발, 안보 그리고 진영의 강화를 내용으로 담은 대민심리전을 벌어야 했고, 선전영화는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였다. 한국군은 선전영화를 통해 개발 및 안보 차원의 국가건설 전범에서부터 개인의 생활방식과 사고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이는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이 '아시아 반공연대'의 정체성을 공유한 반공 국가와 반공

소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활동을 정리한 장편 다큐멘터리 〈자유의 십자군〉에서도 확인된다. 박선영에 따르면 이 영화의 시퀀스는 '반공 아시아'에서 시작해 '유신의 힘찬 맥박'으로 끝나며, 주안점은 국민에게 총력안보태세의 확립을 주지시키는 데 있었다(박선영, 앞의 글, 2015, 276면).

102) 동아시아 냉전의 내재화와 그 결과물로서 '1972년 분단국가체제'의 수립에 관해서는 허은, 『냉전과 새마을』, 창비, 2022; 동북아 데탕트 국면의 조성과 이에 역행하는 박정희 정부의 냉전의 내재화 정책에 관해서는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국민을 만들기 위한 문화냉전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음을 보여준다. 한국군이 문화냉전으로서 선전영화를 상영할 수 있었던 것은 대외 선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박정희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한국군이 벌인 문화냉전은 1969년 미국 정부의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정책이 낳은 새로운 상황에 크게 규정 받았고, 이에 따라 개발과 안보라는 의제의 함의도 변화되었다. 1969년 이전까지 한국군과 박정희 정부는 선전영화를 통해 이른바 자유진영의 수호를 위해 전투와 건설이라는 이중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시아의 반공군'으로서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했고, 한국을 경제와 국방 양 측면에서 모범적인 발전을 이루는 자유진영 국가로서 선전하고자 했다.

하지만 1969년 닉슨 정부의 탈베트남전 정책 추진은 베트남전의 성격과 동아시아 정세를 급변시켰고, 이는 한국, 남베트남, 미국 3국을 묶었던 '진영 안보'라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박정희 정부와 한국군도 새롭게 조성될 여건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이 급증했던 사실은 한국(군)이 문화냉전을 능동적으로 벌인 주체이자 문화냉전의 성격을 바꾼 주체였음을 말해준다.

1969년 베트남전쟁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한 이래 박정희 정부는 탈베트남전 정책으로 동아시아 냉전을 내재화하며 '1972년 분단국가체제'를 수립하는 노선을 선택했다. 문화냉전도 같은 길을 걸었다. 1973년 주남베트남 한국군의 철군과 함께 돌아온 선전영화들은 진영을 위한 서사가 제거된 뒤 '1972년 분단국가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활용되었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탈베트남전 경로에서 남베트남 전장에서 벌인 문화냉전을 끝내는 대신 변용, 내재화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자료〉
『국방』
『경향신문』
『민사심리전순보』
『평화와 건설』

국가기록원 소장,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베트남전쟁 선전영화 관련 자료군.

주월한국군사령부, 『각 부대 민사심리전』, 1968,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HB01813.
_____, 『심리전 일반』, 1968,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HB01807.
수도사단, 『민사 및 심리작전 보고』, 1967, 군사편찬연구소 HB01865.
수도사단 민사처, 『민사심리전 정기보고』 1970, 군사편찬연구소 HB01866.
_____, 『민사심리전 정기보고』 1971, 군사편찬연구소 HB01867.
_____, 『민사심리전 정기보고』 1972, 군사편찬연구소 HB01868.

육군본부 심리전감실, 『현대심리전』, 1957.
육군본부, 『월남전쟁 파월한국군전쟁사료』 2, 32, 44, 44, 51, 55(1992-2008).

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자료(駐越韓國軍戰史資料集)』 1-2, 1967.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越南戰綜合硏究)』, 1974.
국방부, 『주월한국군전사(1972.1-1973.3)』 10, 1985,

Office Deputy Chief of Staff for Military Operations, *PSYOP FACT BOOK : International and Civil Affairs Directorate*, RG319, PsyOp in Vietnam War 1964-74, Box 4, U.S. NARA at College Park.

주한미공보원, 『미국공보원 영화목록』 1964.
_____, 『필름 카탈로그』, 1968.
USIS-KOREA, USIS FILM CATALOG, 1967.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역사영상융합연구팀 한국근현대영상아카이브, http://kfilm.khistory.org.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타베이스(KMDb) 정보, https://www.kmdb.or.kr.
e영상역사관 사이트, https://www.ehistory.go.kr.

〈논저〉
강인덕,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 1, 경인문화사, 2022.
공영민, 「1950년대 미국의 공보선전 전략과 공보실 영화제작소」,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8.

기시 도시히코, 쓰치야 유카 편(김려실 옮김), 『문화냉전과 아시아: 냉전 연구를 탈중심화 하기』, 소명출판, 2012.
김려실, 『문화냉전: 미국의 공보선전과 주한미공보원 영화』, 현실문화, 2019.
김영희, 『한국전쟁 기간 삐라의 설득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52-1, 한국언론학회, 2008.
_____, 「한국전쟁 기간 미국의 대한(對韓) 방송활동: VOA한국어 방송과 VUNC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2, 한국언론학회, 2009.
김우성, 「베트남 참전시기 한국의 전쟁 선전과 보도: 1965-1973년 정부, 의회, 군사 자료와 조선일보를 통해 본 베트남전쟁의 사회적 현실」,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태문, 「주월 한국군에 가해진 심리전 목표분석—특히 전단(1966-1970)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2.
김한상, 『조국근대화를 유람하기—박정희 정권 홍보드라이브, 〈팔도강산〉 10년』, 한국영상자료원, 2008.
문선익, 「베트남전쟁기 한국군의 민사심리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20.
박선영, 「프레임속의 전쟁: 국립영화제작소와 국군영화제작소의 베트남전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과 아카이빙 그리고 새로운 역사쓰기』, 선인, 2015.
_____, 「두 개의 전쟁과 집합적 기억의 형성—베트남전쟁 시기 군영화산업의 전개와 활용—」, 『현대문학의 연구』 71,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1940-1950년대』 현실문화, 2008.
오타오사무, 허은 편,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 소명출판, 2017.
이순진, 「국가에 의한 영화 제작의 역사와 국립영화제작소: 정부 영화제작 기구와 민간 영화산업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워진 한국영화사—문화영화의 안과 밖』, 한국영상자료원, 2014.
이신재, 「주월한국군방송국(KFVN)의 설치와 운영」, 『군사』 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_____,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_____, 「베트남전쟁기 파월장병지원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군사연구』 149, 육군군사연구소 2020.
이윤규,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6·25전쟁과 심리전』, 지식더미, 2006.
이임하, 『적을 삐라로 묻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철수와 영희, 2012.
이하나, 『국가와 영화』, 혜안, 2013.
장영민, 「한국전쟁 전반기 미군의 심리전에 관한 고찰」, 『군사』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_____, 「6·25전쟁기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 방송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4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_____, 『한국방송의 성장과 미국의 대한선전』, 선인, 2020.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개양상」, 『한국사론』 50, 서울대 국사학과, 2004.
_____, 「6·25전쟁기 미군의 삐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한국역사연구회, 2004.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59, 한국영화학회, 2014.

조혜랑, 「'베트남전쟁 문화영화'의 역사적 배경 연구: 1960-70년대 국립영화제작소의 영상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7, 영상예술학회, 2015.
최용성, 「한국전쟁시 미군의 전술심리전 효과분석(1950년 6월-12월)」, 『군사』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최용호,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 방법과 결과」,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05.
크리스토퍼 심슨(정용욱 옮김), 『강압의 과학』, 선인, 2009.
함충범・정대훈, 「박정희 정권기 국립영화제작소에 대한 연구: 1960년대 한국영화계의 시대적 특수성 및 역사적 함의와 더불어」,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8,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3.
허 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_____, 『냉전과 새마을』, 창비, 2022.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Mervyn Edwin Roberts Ⅲ, *The Psychological War for Vietnam, 1960-1968*,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8.
Nicholas J.Cull,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Robert W. Chandler. 'U.S. Psychological Operations in Vietnam', 1965-72, Diss of Ph.D,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74.
_____, *War of Ideas: The U.S. Propaganda Campaign in Vietnam, Westview Press*, 1981.
Robert J. Kodosky, *Psychological Operations American Style: The Joint United States Public Affairs Office, Vietnam and Beyond*, Lexington Books, 2007.
Ron Robin,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Culture and Politics in the Military-Intellectual Complex*,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Abstract】

The result of the Korean military's Screening of Propaganda films and the Cultural Cold war during the Vietnam War

Heo, Eun*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s prolonged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which lasted from 1964 to 1973, has received continuous scholarly attention due to its profound impact on the modernization path pursued during the same perio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ivided state system of South Korea in 1972. This article departs from the traditional approach of focusing on the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aspects of South Korea's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and situates it within the context of the Cultural Cold War. This shift in perspective sheds light on the R.O.K military as both an active actor in the East Asian Cold War, particularly the cultural Cold War, on the battlefields of South Vietnam, and as an actor in the Cultural Cold War's dissolution.

On the battlefield in South Vietnam, the R.O.K military used the medium of film to wage a parallel psychological and cultural cold war. the R.O.K Army units had to focus on mass psychological warfare; the main medium for this was movie screenings. R.O.K Army units in South Vietnam actively screened films introducing South Korea to the population in controlled areas with support from 'the National Film Production Center(국립영화제작소)'. Interestingly, the film medium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R.O.K military's war in civilian psychology until the late 1960s, but in 1970 and 1971, the number of screenings and attendance increased dramatically. The reasons behind the surge in the R.O.K's propaganda films were the changing cours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due to the U.S. government's Vietnamization policy, which led to a re-contextualization of 'Development and Security' of the main agenda of the R.O.K's propaganda films.

Keywords: the Vietnam War, Psychological War, Propaganda, Film, the Cultural Cold war,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the Korean Military in South Vietnam.

접수일: 2023.02.28.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3.

*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